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2 Spring Vol.45

공지사항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사항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Global 항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 글로벌 시장 첫 선적!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Global R&D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의료강국 제약강국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09. 6. CCB계열 암로디핀칼실레이트와 ARB계열 로살탄칼륨 성분의 세계최초 복합개량신약 발매
- 2009. 7. MSD와 공동마케팅(아시아 6개국 수출계약 포함) 국내 최초 다국적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
- 2011. 5. MSD와 2차 수출계약체결로 총 30개국으로 확대
- 2011. 11. MSD와 3차 수출계약체결로 총 50개국으로 확대



Contents

경북의사회

2012년 봄호(제45호)



- 04 취임인사**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 정능수
법대로 원칙대로 · 김광만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듭시다 · 노환규
대의원회, 회원님과 대의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변영우
- 08 감사인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이석균
- 09 포토뉴스**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 12 회무소식**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신임 회장 · 의장 선출
분회 신임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취임식
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 18 회무단신**
- 20 의료기관 개원현황**
- 21 수상자에게 듣는다**
제3회 경상북도 의사회 학술상 · 임현술
제40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장석류장 수훈 · 신현수
- 24 공지사항**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사항 안내
- 27 분회 및 병원소식**
- 31 회원문예**
수 필 _ 비목 · 이원락
나의 3막, 칠중철궁(七重鐵宮) · 정만진
- 37 의학 및 건강칼럼**
2011년 미국심장학회
노인고혈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약물치료를 중심으로) · 나득영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중영
발행일 2012년 5월 11일
발행처 경상북도 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j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2. 4. 5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2. 10.	제47회 경북의사회 가을호 발간
2012. 4. 29	제6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2. 11. 4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2. 5. 11	제45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2.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2. 5.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2. 5. 13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도명산)	2013. 1.	제48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2. 5. 19~20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3. 3.	2012년도 전체이사회
2012. 7.	제46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3. 3.	2012년도 회무감사
2012. 10.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3. 3.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대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에 취임하여 회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사에 끝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사회의 전통적인 장점을 계승시키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의료계의 변화를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우리들은 무한경쟁의 산업화시대, 투쟁과 갈등의 민주화 시대를 거쳐 바야흐로 공동번영의 복지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도 이러한 시대에 적절히, 그리고 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년 임기 동안 회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쟁일변도 보다는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당한 우리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 개인보다는 의료계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의료계의 투쟁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지지 없는 우리들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42대 집행부는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해주신 훌륭한 능력있는 부회장님과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회원과 소통할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함으로써 젊은 감각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화합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follow me’보다는 함께 갑시다 ‘go together’를 저의 집행부 기조로 삼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현재는 퇴보라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불합리한 정책과 왜곡된 사고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좀 더 나은 미래의 의료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우리 의료계 내부의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외부의 간섭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최상의 변화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화두는 아마도 ‘같이 다 잘 살자’ 일 것입니다.
가진 자는 좀 더 주위에 베푸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자제해야겠으며, 덜 가진 자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과멸 시킬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 구현을 위해 투쟁적인 마인드를 화합하는 마인드로 변화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료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현상이 깊숙하게 만연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다 함께 경상북도의사회를 최고의 의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정 능 수

법대로 원칙대로



이 곳 동해안에도 봄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샛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으스스한 기운에 옷자락을 여미게 됩니다. 이곳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날씨만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긴팔옷 하나는 장롱에 넣지 마라 하는 말이 이제 서야 이해가 될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부터 제15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임무를 시작한 김광만입니다. 아직 경험도 미천한 제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두세 달이 지난 아직도 걱정만 천근만근입니다.

이전에도 조용한 날은 거의 하루도 없었지만 작금의 의료계도 안팎으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밖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료계를 쥐어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대다수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가 시행되어 환자분들과 우리 의사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는 소위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우리 의사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7월부터 정부가 강압적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포괄수가제(DRG), 그리고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총액계약제도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지난 3월말 의협 회장 선거에서 이러한 상황 하에 비교적 젊은 의협회장이 선거인단의 일방적인 지지로 선출되어 이제 정식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한 표라도 더 많다면, 설사 그 선택이 자기 주장과 다르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더군다나 60% 가까운 지지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회장을 일사분란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10만 의사들을 억누르면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현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절반은 우리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는 한꺼번에 취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저는 당장 먹을 끼니만 있다면 과감하게 명예를 택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자기자신, 즉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요새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도덕재무장운동이라도 다시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법 없어도 되는 사회도 좋지만 법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없이 사는 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것은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수가 많습니다. 원칙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여러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법대로 원칙대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해주신 임무를 행할 겁니다. 그리고 42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를 힘껏 도울 것입니다. 임기가 끝난 후 부끄럽지 않는 15대 의장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봄이 아니라 초하의 계절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 광 만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 의사들의 소통 창구, 경북의사회보의 45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37대 의협 회장 취임과 새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이렇게 지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10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지키시는 회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여실히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로 인해 부득불 전문분야를 포기하거나, 편법 또는 불법진료를 동원해야 할 지경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대책으로 의사를 더 옥죄는 방법을 찾는 데만 혈안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비극적 의료현실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우리 의사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는 의료제도가 의사의 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정면 도전하지 않고 회피해왔습니다. 말로만 떠들며 행동하지 않았고,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의료의 왜곡은 외면해왔습니다. 이 사실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학문적으로 입증된 전문의학적 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는 의사윤리강령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진료해야 하는 잘못된 상황, '요양기관당 연지정제'라는 굴레로 인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당하고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의료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세금이 아니

라 의사들의 민간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등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자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의료 정의(正義)를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우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비겁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난날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이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의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미래는 여전히 캄캄할 것이고 후배의사들과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37대 집행부와 함께 뛰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의사회보다도 강한 결속과 단합을 자랑하는 경북의사회가, 의료계를 위해 크게 활약하며 의협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노 환 규

대의원회, 회원님과 대의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9일 제6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70% 가까운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경북과 대구가 분리된 후 경북의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의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오직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정능수 경북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의사회는 회무참여와 의권투쟁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모범지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북의사회의 활동이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이번에 제가 당선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선거를 위하여 전국을 돌며 대의원 한 분 한 분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의협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임 경만호 집행부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해하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환규 집행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대의원들은 대의원회가 집행부와 너무 밀착하지 말고 건전한 견제세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의장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의사봉을 인계받아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황없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젊은 회원들이 그토록 희망하던 의협회장 직선제 안건을 통과시켜 의협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설치 건, 윤리위원회 위원 선정 건 등도 통과되어 다른 어느 총회 때 보다 알찬 내용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의원회의 주체는 회원이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단지 대의원은 회원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토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의원회를 본래의 의미대로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온전히 돌려 드리겠습니다. 대의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고 의결하는 모든 내용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의 모든 운영과 의결사항을 회원들이 진료실에 앉아서도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한 소통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의협과 대의원회를 믿고 사랑 할 수 있고 나아가 의협을 중심으로 전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대의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27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변 영 우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올 봄은 유난히도 말썽을 부리더니 봄 향기를 느끼기가 무섭게 훌쩍 지나간 듯 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3년간 제41대 경상북도 의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회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41대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치와의 소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계간지의 회보도 만들고, 전 지역의 시·군 회장님도 만나고,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우리 의사나 의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봉사단도 만들고, 시군 의사회가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와의 소통을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도지사 방문 등 우리들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고 들은 현안들이 지난 3년간 회무를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 회원들의 바람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소신껏 계속적인 진료와 전보다 수입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기초작업에 주력하

였습니다. 차기 집행부에서 여기에 주춧돌도 놓고 기둥도 세워 훌륭한 건축물을 세우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선에서 6명의 의사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는 여전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는 마련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택하고 있으며, 결국 재정압박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있을 대선 또한 우리 의료계의 힘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선심성 공약보다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과거의 언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후보, 자기의 출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봉사자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도 봉사요,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할 때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것도 봉사라면, 나의 언행이 남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지않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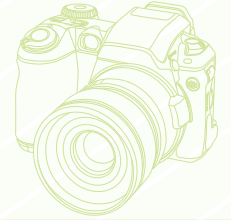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저희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님, 유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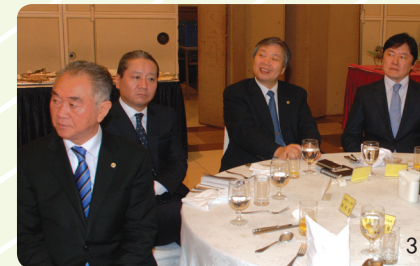
제41대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이 석 균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7일(토) 오후 6시 대구제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1. 개회식 장면
- 2. 총회 참석한 주요 내빈들
- 3. 의협 회장 출마 입후보자



1. 정만진 의장의 개회사
2. 이석균 회장의 인사
3. 나현 의협부회장의 축사
4. 이인선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의 축사
5. 이원기 본회고문의 의사윤리강령 낭독



6. 제3회 학술상 시상(임현술 교수)
7. 본회 대외 표창
8. 모범회원 표창
9. 모범분회 표창(칠곡군의사회)
10. 이석균 회장의 의료봉사단 기금전달



11. 대의원의 발언
12. 감사 및 결산보고
13. 보조대의원들
14. 전형위원회에서 임원 선출



회장 및 의장이 취임식

1. 정능수 신임회장의 의사회기 인수
2. 신임 회장 및 의장이 취임식
3. 정능수 신임회장의 취임인사
4. 김광만 신임의장의 취임인사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신임 회장·의장 선출

금년도 예산 4억6천5백만원 확정 제3회 학술상에 임현술 교수 수상



본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12년 3월 17일(토) 오후 6시 호텔제이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정능수 회원을, 신임 의장에 김광만 회원을 선출했으며, 금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이인선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나현 의협 부협 회장, 이원기 의협 부의장,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자, 고순희 경북간호사회장, 본회 신은식·변영우 고문과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장, (주)동원약품 현수환 회장, 의협회장 후보자 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 64명(재적 79명)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의견을 보여줘야 정부든 정치권이든 설득시킬 수 있다.”며 회원들이 똘똘뭉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또한 “조만간 치러질 의협회장 선거에서 의료계를 단합시킬 수 있는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으면 한다.”며 의료계 단합을 위해 힘을 쓰게 되면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균 회장이 “지난 3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후배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으며, 차기 집행부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고 들은 현안들이 회무를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 회원

들의 바램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소신껏 지속적인 진료와 더불어 수입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서는 의협 경만호 협회장을 대신해 나현 부협회장과 경상북도 이인선 정부부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본회 이석균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에 써달라며 일천만원의 기금을 김광만 의료봉사단장에게 전달하여 훈훈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인 임현술 교수(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가 발표한 ‘Prevalence of Shiga toxin-encoding genes and risk factors among dairy farmers in Gyeonggi Province, Korea’ 논문이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으며, 부상으로는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에서 후원하는 금1냥이 주어졌으며, 모범분회상은 칠곡군의사회(회장 이영현), 또 김종규(안동병원)·장태영(동산제통의원) 회원이 모범위원상을 수상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2012년 예산 4억 6500만원을 의결했으며, 주요 사업계획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의료제도 조사연구사업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의료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의료분쟁조정법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 △회원실태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조사 △대외 및 대내 봉사사업 전개 등을 정했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건강보험수가 인상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포괄수가제 반대 △왜곡된 심사통계를 바로잡아 줄 것 △병의원 주 5일제 근무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성범죄 의사 취업 제한법 제정 반대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마련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 △의협회장 선거인단 간선제 선거방식 개선 △회원과의 소통 강화 △의협 공제회 활성화를 채택했다.

아울러 본회 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추후 T/F팀을

구성해 더 논의 후 차기 총회 안건으로 상정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회장 및 의장 선출에서는 정능수 회장 후보와 김광만 의장 후보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등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나현·주수호·윤창겸·최덕중·노환규 후보가 참석하여 선거인단의 표심을 잡기에 나섰다.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상자 명단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 임현술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
- 본회 감사패
 - 현수환 회장((주)동원약품)
-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 류성훈 회원(류외과의원)
 - 한형원 회원(한형원내과의원)
- 본회 대외 표창
 - 이상홍(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사무관)
 - 김영길(후생신보 대구지사 지사장)
 - 김춘홍(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과장)
 - 백향미(심사평가원대구지원 심사평가부 대리)
 - 조종구(대한의사협회 공제회 팀장)
 - 김현옥(대한의사협회 신문국 과장)

- 본회 모범분회
 - 칠곡군의사회(회장 이영현)
- 본회 유공회원
 - 정숙형(정가정의학과의원)
 - 광효섭(성진의원)
 - 문상웅(제일외과의원)
 - 이동길(이동길내과의원)
 - 김광렬(김광렬학문외과의원)
 - 채한수(채한수비이비인후과의원)
- 본회 모범위원
 - 김종규(안동병원) • 장태영(동산제통의원)
- 본회 대내 표창
 - 고한균(경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장)
 - 김경호(상주적십자병원 원무계장)
 - 김양근(중외신약 경북2팀장)
 - 김세경(경산시의회 간사)

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

1. 건강보험 수가 인상 건의

약가인하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의료를 기형화 할 정도로 낮게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하는데 사용해 줄 것을 건의

2.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 조정 건의

최근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상한액(15,000원) 초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인부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상향(20,000원)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3. 포괄수가제(DRG) 반대 건의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반대 건의

4. 왜곡된 심사통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

심사평가시 불합리한 주·부상명과 통계처리로 일어나는 잘못된 결과로 왜곡된 심사와 질병통계로 이어지는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

5. 병원주 5일제 근무제 건의

관공서와 기업체 대부분이 주 5일제로 생활패턴이 바뀐 사회시스템으로 의사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필요하므로 병의원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

6.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건의

약품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은 물론 특정 지역의 처벌 위주법 시행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폐지할 것을 건의

7.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 제정 반대 건의

특정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법률규제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할 것을 반대 건의

8.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건의

복지법인 및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행위 대책 건의

9.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 건의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건의

10.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건의

의협회장 선거인단 선거의 시행과정 중 미비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 선거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11. 회원과의 소통 강화 건의

현재 의료계는 소통부재로 인한 내용을 겪고 있는 바, 회원간·지역간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12. 의협 공제회 활성화 건의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협 공제회 의무가입과 배상공제에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 회원서비스를 위한 합리적, 효율적 보상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

13. 기 타



**본회 신임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취임식**

본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2012. 3. 17) 제3부 행사로 본회 회장 및 의장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회장 후보로 오른 정능수 회원과 대의원회 의장 후보로 오른 김광만 회원이 단독으로 출마함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대되어 당선됐다.

정능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쟁적인 마인드를 화합하는 마인드로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3년간 대의원회 부의장직의 경험을 살려 회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투쟁일변도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당한 우리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follow me 보다는 go together를 기조로 삼을 것이며, 과거의 불합리한 정책과 왜곡된 사고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최상의 변화가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만 대의원회 신임 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혼돈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를 쥐어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명예를 지키려면 양심에 부끄럽지 말아야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앞으로 3년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능수 신임회장 주요약력

- 정능수 회장은 1954년생으로 198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8년 외과 전문의 취득, 1993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의성군 안계면 소재 동산연합의원을 개설해 운영
- 의성군의사회장, 경상북도 의사회 감사,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의성경찰서 방범자문위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의성군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장,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부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동문회장, 경북 중·고등학교 의성군 동문회장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경상북도 자랑스런 도민상(2006. 10. 23.), 대한의사협회 공로패(2007. 3. 31.)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 김광만 대의원회 신임의장 주요약력

-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1958년생으로 198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0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1996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포항시 남구 지곡동 소재 지곡그린의원을 개설해 운영
- 포항시의사회 정책이사, 의무이사, 부회장 및 회장과 경상북도 의사회 공보이사, 기획이사,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
- 대한의사협회 공로패(2010. 3. 27.)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0. 6. 29, 2011. 4. 7.) 표창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1) 세입총액 ₩486,065,653원 (자: 2011. 4. 1)
- 2) 세출총액 ₩486,065,653원 (지: 2012. 3. 31)

■ 총괄표 (단위: 원)

세입부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회비	334,500,000	350,631,000	△16,131,000
기타수입	48,044,514	57,979,167	△9,934,653
이월금	77,455,486	77,455,486	
합계	460,000,000	486,065,653	△26,065,653

세출부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사업비	160,000,000	142,657,210	17,342,790
회의비	18,000,000	17,877,400	122,6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5,000,000	13,710,000	1,290,000
활동비	44,000,000	41,640,000	2,360,000
사무비	117,500,000	118,022,610	△522,61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2,700,000	27,889,822	4,810,178
예비비	24,800,000		24,800,000
이월금		76,268,611	△76,268,611
합계	460,000,000	486,065,653	△26,065,653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 1) 세입총액 ₩465,000,000원 (자: 2012. 4. 1)
- 2) 세출총액 ₩465,000,000원 (지: 2013. 3. 31)

■ 총괄표 (단위: 원)

세입부			
과목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
회비	340,000,000	334,500,000	△5,500,000
기타수입	48,731,389	48,044,514	△686,875
이월금	76,268,611	77,455,486	1,186,875
합계	465,000,000	460,000,000	△5,000,000

세출부			
과목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
사업비	160,000,000	160,000,000	
회의비	18,000,000	18,000,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5,000,000	15,000,000	
활동비	44,000,000	44,000,000	
사무비	123,000,000	117,500,000	△5,500,00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2,700,000	32,700,000	
예비비	24,300,000	24,800,000	500,000
합계	465,000,000	460,000,000	△5,000,000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



정능수 회장
(동산연합의원)



심재철 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김재왕 부회장
(김재왕내과의원)



김광만 의장
(지곡그린의원)



김광인 부의장
(안동제통의원)



황석순 부의장
(황석순내과의원)



장유석 부회장
(장유석외과의원)



한형원 부회장
(한형원내과의원)



박소윤 부회장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황정환 기획이사
(상주성모병원)



문상웅 기획이사
(제일외과의원)



최영환 학술이사
(최영환내과의원)



나득영 학술이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재흠 재무이사
(경북외과의원)



지성구 부재이사
(경북외과의원)



이상호 보험이사
(대신의원)



이흥우 보험이사
(서울내과의원)



이우석 의무이사
(영동안과의원)



김중영 공보이사
(김연함소아청소년과의원)



김우석 정보이사
(포항태항외과의원)



방중경 정책이사
(덕산의원)



서보균 정책이사
(포항교도소)



김병용 정책이사
(해피맘산부인과의원)



백현우 정책이사
(백현우외과의원)



이상호 정책이사
(이상호정형외과의원)



김찬중 정책이사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장재혁 정책이사
(제일정형외과의원)



배창표 정책이사
(현대정형외과의원)

감사단



박봉기 감사
(박내과의원)



하달봉 감사
(하달봉미비노기과의원)



서영진 감사
(상쾌한항구병원)

대의원회 의장단

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변영우 본회 고문, 의협 새 의장 선출
본회 모범분회 표창, 예산 384억원 통과
의협 회장 선거방식 '직선제'로 '유턴'

대한의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역별·직역별 대의원 총 242명을 비롯해 경만호 의협 회장, 박희두 대의원회 의장, 문태준 명예 회장, 노환규 제37대 의협 회장 당선인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일) 개최되었으며, 이날 총회는 경만호 집행부의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협의 회무를 점검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중요한 의미 속에 치러졌다.

•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주요약력

- 변영우 의협 신임의장은 1948년생으로 1974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1982년 신경외과 전문의 취득, 1995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 경상북도의사회 제38대, 39대 회장,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 기획특별위원장 등을 역임
- 경상북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 (재)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 이사, 경북대학교병원 이사, 경북대학교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

경만호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의협이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의협 회비 납부를 제고 방안, 의협 기구 축소 및 회비 인하 등 의협의 재무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하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강구,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제도 개선 등 노환규 새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위한 201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억7900만원 증액된 384억8100만원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이 현행 선거인단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다시 변경됐다. 의협회장 선거방식 변경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참석 대의원 163명 중 의결정족수 108명(재석 대의원 3분의 2)을 가까스로 넘긴 109명이 직선제에 찬성, 가결됨에 따라 오는 2015년 치러지는 제38대 의협 회장은 전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었다.

의협은 2011년도 회계 감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결산보고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감사 보고에 따라 대의원들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의협 결산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기로 결정했다.

신임 의장 선출에서는 변영우 본회 고문이 출마한 가운데 2차 투표까지 진행되는 접전을 거쳐 의협 대의원회 제27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선 직후 박희두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 받은 변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의 뜻에 따라 대의원회를 잘 운영하라는 의미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며 “회원과의 협력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의협과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로 화합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의원회 회의 내용 등 모든 추진 사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되찾아 신임 집행부가 회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협 감사와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하지 못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의 정계 파문으로 최근 수 개월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리위원회의 임기가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윤리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맞물리는 시기상 혼란으로 인해 차기 집행부에 구성 전반을 위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의결했다. 또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경만호 회장의 의협 명예회장 추대건은 대의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아울러 이날 타 의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시도지부를 선정하여 시상기로 한 바, 금년에는 본회가 모범지부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총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중단, 진료수가 현실화,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37대 의협회장에 노환규 후보 “당선”



지난 3월 25일 (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의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5번 노환규 후보가 총 유효표 1430표 중

58.7%(839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선거인단 1574명 가운데 1430명이 투표에 참여, 90.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1차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노환규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2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조교수를 거쳐 AK존스의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현재 (주)헨즈앤브레인 창업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닥터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의사들이 나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2009년 9월 전국 의사총연합을 결성, 대표를 맡았다. 전의총은 숭고한 의업을 수행하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음으로써 항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해 왔다.

노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총액계약제·무상의료 등 복지포폴리즘 정책을 막아내는 한편,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의사가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 회원을 섬기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p. 17·18 기사 및 사진 제공 : 의협신문)

■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선거인단	투표참여	후보별 득표수 및 득표율					
		나 현	최덕중	전기업	주수호	노환규	윤창겸
1,574	1,430	221	114	11	74	839	171
100%	90.9%	15.5%	8.0%	0.8%	5.2%	58.7%	12.0%

본회 회장, 취임인사차 유관기관 등 방문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2012년 4월 2일(월)부터 취임인사차 경상북도를 비롯한 경상북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언론사, 대구

지역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인사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정능수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을 전하고, 향후 경상북도 의사회와 유관단체간의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를 구하였다.

■ 방문기관

기관	방문기관	비고
행정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대학교, 대구지방국세청	
유관기관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 심평원대구지원,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주)동원약품	
언론방송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 KBS대구총국, MBC대구방송	
대구지역 종합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지역 종합병원	포항성모병원, 선린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김천신경정신병원, 김천제일병원, 경산세명병원, 경산중앙병원	

제40회 보건의 날 행사 개최



도민의 건강 증진 고취와 정신건강 예방·편견해소로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

40회 보건의 날 및 제12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가 지난 4월 5일(목) 오후 2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와 박보생 김천시장, 본회 정능수 회장과 도내 보건의료단체장,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에는 유공자 표창과 김천시장의 환영사, 경상북도 도지사의 기념사, 축사, 보건의 날 노래 합창 등이 열렸으며, 건강체크, 건강상담 및 교육과 건강체험 등 홍보 등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기념식에 앞서 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회장과 보건의료단체장, 김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회무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신현수 원장은 안동 의료원 경영 개선 등 공공병원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0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신규 집행부 회무인수인계



지난 2012년 3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제41대 이석균 회장과 제42대 정능수 신임회장간 의사회 회무와 경

리 일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다.

회무인수인계에서 정능수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전통적인 장점을 계승시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의료계의 변화를 접목해 나가겠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사에 끝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2대 집행부의 회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회무인수인계에는 제41대 이석균 회장과 장유석 재무이사가, 제42대 정능수 회장과 이재흠 재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본회 박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이월금 76,268,611원과 회관기금 적립금 239,566,798원, 특별회비 적립금 123,203,255원, 의권대책 적립금 113,761,853원, 각종성금 적립금 6,119,822원, 퇴직기금 적립금 30,583,343원과 각종 비품현황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

의사 출신 19대 국회의원 6명 당선

지난 4월 11일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사회원 6명이 당선되었다.

의사 출신 후보 중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갑) ▲정의화(새누리당/부산 중·동구) ▲안홍준(새누리당/마산을)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로는 ▲신의진 연세대 교수(새누리당 7번)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민주통합당 6번) ▲문정림(자유선진당 1번) 후보가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약사 출신으로는 김미희(통합진보당/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상희(민주통합당/경기 부천시소사구) 후보가, 치과 의사 출신 김영환(민주통합당/경기 안산시 상록을) 후보와 김춘진(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군) 후보가 당선됐다.



▲ (좌측부터) 박인숙, 안홍준, 정의화, 신의진, 김용익, 문정림 당선자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은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회원 중에서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으로 부상으로는 상패와 부상(금1냥)이 주어진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은 등록된 회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연구 발표한 논문을 외부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값진 상을 3번째로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베풀어 주신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 회장님,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님, 이경섭 심사 위원장님을 포함한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후원하여 주신 (주)동원약품의 현수환 회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상북도의사회 모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대학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시절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고, 보건대학원 시절 직업 및 환경병, 농어민병, 군인병 등을 연구하고자 환경 및 직업 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군의관 시절 2년간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영남 지방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1990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산업 의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까지 22년간 포항과 경주에서 근무하고 기거하면서 경상북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학을 전공하여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방법은 연구를 하면서 이를 발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축산과 낙농업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증, 브루셀라증, 쯔쯔가무시병, 큐열, 라임병 등을 연구하여 이를 국내외 저널에 게재하여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동국의대에 근무하면서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학술활동이 부진하고 나이가 많은(?) 제가 학술상을 받아 열심히 연구하는 젊은 후진에게 죄송하고 면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술상은 더 분발하여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지키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는 것이 귀한 상을 주신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이 경상북도 의학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서 더 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현술 드림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2년 1월 ~ 4월)



포항시

염찬동 _ 맨남성의원
(791-090) 포항시 북구 중앙로 273
T. (054)231-7001 / F.231-7009

김유국 _ 드림연합의원
(791-94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읍로 991
T. (054)261-7582

구미시

안창수 _ 수연합정형외과의
(730-140) 구미시 금오대로 291
T. (054)465-1199 / F.464-8999

채희선 _ 신세계소아청소년과연합의원
(730-300) 구미시 구평동 450-1
구평메디칼2층
T. (054)474-8806 / F.474-8807

이상균 _ 제일의원
(730-804) 구미시 선산읍 남문로4길 1
T. (054)482-0962 / F.482-5647

상주시

이상원 _ 지성의원
(742-844) 상주시 공성면 공성중앙로 81
T. (054)534-6888 / F.534-6889

이태인 _ 파랑새의원
(742-913) 상주시 모동면 용호3길 6
T. (054)535-2448 / F.535-2448

안동시

이준승 _ 서울신통의원
(760-150) 안동시 퇴계로 73
T. (054)842-3737 / F.852-3210

윤현주·윤성욱 _ 안동삼성연합안과의원
(760-310) 안동시 경북대로 408 2층
T. (054)853-1275 / F.853-1274

김도형 _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760-170) 안동시 중앙시장길 26 2층
T. (054)855-0240 / F.855-0241

경주시

안강요양병원
(780-805)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4길 8
T. (054)760-8800 / F.760-8892

김천시

전보성 _ 참이비인후과의원
(740-978) 김천시 신읍동 460-10
광희빌딩 302호
T. (054)439-5588 / F.439-5589

문경시

박재현 _ 서울의원
(745-887) 문경시 중앙로 105
T. (054)555-1779 / F.553-1776

김정훈 _ 삼성연합의원
(745-886) 문경시 중앙로 138
T. (054)553-7285

청도군

정명훈 _ 삼성연합의원
(714-802)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
T. (054)373-2700 / F.372-7771

제40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석류장 수훈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안동의료원 원장 신 현 수

나는 살아오면서 자기 직업에 불만을 가진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든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직업을 바꾸지 왜 저러고 살까? 하는 의문을 가져 왔었지만 본의 아니게 나 또한 소홀한 적이 있었다. 사회활동 때문이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을 시작으로 최근 WHO 초대 한국 HPH(건강증진병원) 회장직 등 수많은 직책을 맡아왔고 이를 수행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 덕분에 정부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표창, 대한적십자 광무장 금장2번,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국민포장 등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지난 제40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넘보기 어려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고 보니 과연 내가 훈장을 받을만한 업적을 남겼을까?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업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수상을 축하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평생을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사가 된대 대하여 단 한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더구나 외과 의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안동에서 의사로 보람 있게 살았던 한 사람, 환자들과 함께한 한 외과 의사. '최선을 다해 달릴 길 다 달리고' 난 이후는 언제나 크신 힘(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도움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야말로 진인

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나의 신조였다. 특히 의사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자기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고 반추해야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의사로서 내 한평생을 묘사 할 수 있는 심상의 고백이기도 하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청춘을 불살랐던 17년간이나 지켜온 신현수 외과의원의 문을 닫고 1992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제4대 병원장으로의 취임이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 그 당시 안동의료원의 위상은 전국 34개 의료원 중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늘 끝에서 두서너 번째를 차지하는 50병상 규모였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조건은 평소에 늘 모험과 도전정신을 일깨워주었고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수술에 임할 때 나의 그런 본능은 더욱 발휘 되어 더 힘이 생겼다.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 보이는 수술에 과감히 도전하여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 그 순간의 보람과 희열은 외과의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의사로서의 삶, 즐거움 그 자체였다.

더욱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이 있었다. 이제 그 꿈을 실천하는데 내 시간을 쓰고 싶었다. 개인의 원 의사로 17년 동안 일했으니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삶 그것이 내가 꿈 꿔오던 것이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술은 인술이라는 문구를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안동의료원 원장직을 맡아 일한다면 그게 가

“ 끝까지 의료인으로 살고 싶고
혹 제도권 밖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베스트를 다할 생각입니다.”



능할 것 같았다. 안동의료원 운영을 통해 낙후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되살리고 발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도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할 때 꿈꿨던 전국 1위,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의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수상하여 대통령표창은 물론이고 복지부 장관상 4개 모두 안동의료원이 독차지 할 정도로 내적·외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 '나는 운 좋은 외과의사'란 책을 출간 했는데 이 책은 병원을 떠나기에 앞서 그 동안의 나의 시간을 정리해 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디저 스텔레 이스트 마이네 하이 마트 데어젤레 (이 병원은 영원한 내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인사말로 안동의료원과 행복한 인연을 맺은지 20년. 지난 세월동안 한 번도 이 병원이 내 병원이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내 능력으로 더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젊은 후배가 와야 이 병원이 더 훌륭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의료원의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세대의 몫일 것이다. 안동에서 의사로 보람 있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경상북도 북부지역, 다들 '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환자들과 함께한 한 외과의사의 시간을 그린 내용이다.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될 나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의료인으로 살고 싶고 혹 제도권 밖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베스트를 다할 생각입니다.



주요약력

- 1964년 경북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
- 1974년 경북대학교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 취득
- 경상북도축구협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대구·경북병원회장,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장 역임, 민주평통안동시협의회장
- 현재)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WHO 한국HPH회장, 안동의료원장

수상

- 내무부장관 표창(1977), 보건사회부장관 표창(1979), 대구지검 검사장 표창(1980), 적십자 광무장 금장(1994), 법원행정처장 감사장(1999), 국민포장(제1417호, 2001), 국가보훈처장 감사장(2001), 자랑스런 경북도민상(2008)
- 금년 보건의 날 국민훈장석류장(2012) 수훈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춘계학술대회, 경북의학제, 친선의 밤)

본회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가 오는 2012년 5월 19일(토) ~ 5월 20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오니 회원 및 가족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춘계학술대회

- **학술대회** : 5월 19일(토) 15:00 ~ 5월 20일(일) 09:00~ , 오운홀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12평점(토 6평점, 일 6평점)
- **등록비** : 사전 30,000원, 현장 40,000원 / 본회회원
- **사전등록안내**
- 춘계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임상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를 통해 이루어지니 회원님께서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5월 16일(수)까지

:: 경북의학제

- **경북의학제** : 5월 20일(일) 13:00, 야외정원
- **경기종목**
 - 단체 : 탁구, 바둑, 족구, 윷놀이(남성팀 · 여성팀), 2인3각, 골프파칭, OX퀴즈
 - 번외 :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테니스 대회 등
※ 참석자에게는 다양한 경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 **친선의 밤** : 5월 19일(토) 19:00, 오운홀
- 댄스, 마술쇼 공연 등

:: 회원 테니스 대회

- **테니스 대회** : 5월 19일(토) 18:00, 경주테니스협회 테니스장(강변)

:: 학술 프로그램

5. 19 (토)	14:00~15:00	등 록	
	15:00~15:10	개 회	경상북도 의사회 나득영 학술이사
		회장인사	경상북도 의사회 정능수 회장
	[Session I]		[좌장] 경상북도 의사회 심재철 부회장
	1강의	2012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경상북도 식품의약품과 이정기 계장
	2강의	관절외 술관절 전방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교실 김철현 교수
	3강의	어지럼증의 practical management tip	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김성희 과장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경상북도 의사회 장유석 부회장
	4강의	우울증의 약물치료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의학교실 이승재 교수
5강의	암환자에서의 복부 MRI 최신지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영상의학교실 염현규 교수	
6강의	의료현안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	
5. 20 (일)	18:30~09:00	등 록	
	[Session III]		[좌장] 경상북도 의사회 김재왕 부회장
	1강의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시청각 교육
	2강의	만성 기침에 대한 개원가의 치료 전략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영현 교수
	3강의	예방접종 질문에 답하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이동욱 교수
	Coffee Break		
	[Session IV]		[좌장] 경상북도 의사회 대의원회 황석순 부의장
	4강의	일차의료에서 흔히 보는 심전도이상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영수 교수
	5강의	당뇨병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덕희 교수
	6강의	저출산의 뒤편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시청각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사항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요점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동의받기

- ◎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검체검사 의뢰,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목적으로 보며** 진료예약,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핸드폰번호 포함)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 백신접종홍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신의료기기 도입 등의 안내를 위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수집은 서면이나 전자패드(전자파일)를 통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받아 수집된 정보(동의서 및 전자파일 포함)는 법정기간인 최대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고 공개하기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필수적으로 진료접수창구**에 또는 내용으로 비치해야 함
-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필수적으로 진료접수창구에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 · 의원의 접수창구 비치용 또는 진료 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 · 의원의 접수창구 비치용 내용으로 비치해야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보안 조치하기

- ◎ 상시 근무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함(상시 근무인원이 6인 미만, 즉 5인 이하일 경우는 내부관리 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됨)
- ◎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등이 **오픈형으로 보관되는 경우 잠금장치**(나무, 유리(불투명), 접이식(자바라) 등)를 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
※ 전자차트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함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사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부관리계획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서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공개 불필요)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4.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1)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암호화 기술의 적용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3) 접속 기록의 보관 (4)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5)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와 방침 만들기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설치하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철거
 -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만들고 홈페이지에 공개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시

- 본 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층별 복도 XX대
- 촬영범위 : 건물 출입구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00병 · 의원 원장 000 (전화 00-000-0000)

※ 규격이나 글자 크기, 모양 등은 임의로 조정 가능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꼭 포함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하기

-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하기
 -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최소10년 보존토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폐기하여야 함 (**보존기간 산정 시작일은 환자가 최종 내원하여 기록된 시점임**)
 -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필요
 -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알아두기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5일 이내에 알리기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침해신고나 관련문의를 (국번없이)118
- 개인정보 법령위반시 처벌 및 벌칙 규정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 : 우편, 전화, e-mail 등)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privacy.go.kr)

■ 해당 구비서식(관련서식은 분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내부관리계획 지침서, 직원 보안각서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의사회 동산 조성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식목일을 맞아 에코파크 시민의 숲(남구 상도동 소재)에 53만 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의사회 동산을 조성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 기업체, 학생 등 시민 1,200여명이 참여하여 1,100여 그루의 '내 나무'를 심었으며, 포항시의사회 동산에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풍향수(楓香樹)'을 선택하여 식수하고, 그 주변에는 회원과 가족이 신성한 수목들을 식수 하였다.

'제16회 포항시 의사의 날' 성료



지난 4월 22일(일)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회원 및 가족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명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조직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행복해야 온 세상이 건전하게 발전한다며, 일상의 시름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면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풍선탍세우기, 박터트리기, 돼지몰이, 파도타기, 미니골프, 윷놀이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A·B·C 3개팀으로 구성된 이날 경기는 우승 C팀, 준우승 B팀, 3위 A팀이 차지하였다.

경주시의사회

춘계야유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조성범)는 비 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4월 21일(토) 오후 4시, 2012년도 춘계야유회가 선도산(경주 서악)에서 개최되었다.

산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무열왕릉 맞은편 락가에서 뒤풀이 행사를 하였으며, 곳은 날씨 탓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약 4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모여 닭백숙과 막걸리로 푸짐하게 식사한 후에 이봉구 직전회장과 김장희 고문의 건배제의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행운권을 추첨하여 상품권과 대상으로 자전거가 주어졌으며 대상에는 정유선 원장(웅인내과의원)이 당첨되었다. 이어서 이명삼 정보이사의 홈페이지 리뉴얼과 관련하여 설명을 했고, 조성범 회장은 우중산행을 함께 하여 즐거웠으며 다음 야유회에는 더 많은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박수로 이번 춘계야유회를 갈음하였다.

역대회장 모임 개최

지난 4월 10일(화) 오후 7시, 계림횃집에서 역대회장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성범 회장은 "역대 회장님께서 닦아놓은



경주시의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다."고 인사말을 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은퇴하신 이종성 원장은 "환자보는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덕담이 있었다. 참석자로는 이종성·유환우·신한국·김장희·황병욱·이봉구 전 회장과 조성범 회장이 참석하였다.

안동시의사회

안동시의사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4월 26일(목) 저녁 7시, 웅부촌에서 안동시의사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중두, 최유근 원로회원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북의학회 선수선발과 의사회 행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구미시의사회

보건소와의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학근)는 구미보건소장과 선산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5일(목) 오후 7시, 흑산도회관에서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50회 경북도민체전 홍보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고혈압 당뇨 병 등록 관리사업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였다.

임원간담회 개최



지난 4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초대환정식에서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학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열심히 도와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회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문을 덧붙였다.

의료기관 행정실무자 간담회



구미시의사회와 구미보건소, 구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의료기관 행정 실무자 간담회가 지난 4월 6일(금) 오후 3시부터 구미보건

소 3층 열린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검진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제로 관내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고문단 및 병원장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식에서 구미시의사회 고문단 및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 설명과 더불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산시의사회

경산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지난 4월 24일(화) 명품한우식당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의사회에서 개최하는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와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에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기로 하였으며, 경산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전원

의과대학·의전원 출범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전원(학장 임현술)은 지난 3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 2012년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전원 출범식이 종합강의실에서 있었다.

경주시의사회 조성범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 의사회와 경주시의사회에서 각각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포항성모병원

포항대학교와 산학협력



포항성모병원(원장 손경욱, 의무원장 김용필)과 포항대학교는 지난 4월 10일(화) 오후 4시, 포항성모병원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를 돕고 우수인력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서 10년째 '사랑의 인술' 펼쳐

포항성모병원이 10년째 필리핀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문의 4명과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포항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3월 1일부터 나흘간 필리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현지주민 300여 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전하고 무료 시계수리 150여 건과 시계가 없는 현지인들에게 시계를 나누어 주는 등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2003년 처음으로 필리핀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포항성모병원은 매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소외아동 건강지킴이 나서

포항의료원(원장 변승열)은 지역 소외 아동들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 포항의료원은 지난 3월 26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와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의뢰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의료원은 앞으로 매년 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펼치고 질병이 발견될 경우 무료진료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또 비만 등 아동들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변승열 포항의료원장은 "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뢰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 적절한 의뢰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 의료봉사활동 실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심재철) 불교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4월 14일 경주시 산내 대현2리 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포근한 날씨에 경주시 산내면 대현2리 마을 어르신, 선인재활원의 장애우 및 불국사성림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각 진료교수와 불교회 회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무료봉사는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사전에 봉사활동이 필요한 가

정을 조사하여,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수리, 청소 및 빨래 등을 하였으며, 아울러 마을회관 주위의 하천의 목은 쓰레기 등을 치워 환경미화를 하였으며, 또한 불교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점심 대접을 통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어르신들과의 흐뭇한 시간도 보냈다.

춘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지난 4월 24일(화) 오후 6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참석회원에게는 대한의사회 4평점이 주어졌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안동의료원 - 계명대 동산의료원 모자병원 협약식



안동의료원(원장 신현수)은 지난 3월 13일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에서 상호 진료 편의성 향상과 의료 교육연구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진료 협력병원 및 인턴수련기관 모자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안동시보건소 출산장려사업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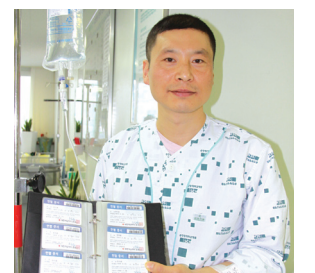
안동의료원과 안동시보건소는 지난 4월 18일(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출산장려사업 및 보건사업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의료원과 안동시보건소는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임신부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이 협약에 따라 안동의료원은 임신부 및 가임 여성 진료 및 건강강좌 등 의뢰서비스 제공,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감면, 다문화 가정 임신부의 산부인과 진료비 감면, 출산 장려사업 관련 인프라를 공유할 계획이다.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고귀한 사랑 실천, 헌혈증 기부한 정지홍씨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정지홍씨는 필요로 하는 곳에 써달라며 헌혈증서 44장을 병원 사회사업실에 기증했다. 정씨가 기부한 헌혈증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헌혈을 꾸준히 해 모은 것으로 특별히 화상환자를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다.

1997년 성주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사고로 화상을 입었던 강씨는 꽤 오랜기간 병원 신세를 지어만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독거

노인, 베트남 환자 등 입원사유가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퇴원 후 완쾌된 것에 감사하며 헌혈을 결심했다. 정씨는 15년간 꾸준히 헌혈을 해왔고 횟수만도 194회에 달하고 있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



지역 학대 아동 발굴 및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는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의 대표 이·취임식 및 총회가 지난 2월 15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전환 병원장 및 후원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이·취임식, 사업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 이사회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에 써달라며 병원에 기증한故배용이씨의 유언에 의해 시작됐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0~18세 아동 중 방임·유기되거나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가정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48명의 학대아동에게 진료비, 수술비, 심리검사를 지원하였으며 병원의 시설과 자원을 바탕으로 학대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병원 안에서 자라는 NGO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입문 교육으로 진정한 간호사로서의 피부 다짐



지난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병원 교육관에서 53여명의 2012년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은 병원현황을 시작으로 병원행정 절차 및 후생복지, 환자권리와 책임, 간호와 직장윤리로 구성된 의료윤리를 비롯해 안전관리, 감염관리, 의료의 질향상, 친절교육 및 의사소통술 등 간호실무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은 신규 간호사들은 입문교육을 통해 진정한 순천향대구미병원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3월부터 병원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구미소방서 119구급·구조대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구미소방서 119구급·구조대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원들의 직무교육을 의뢰받아 매월 셋째 금요일 병원 7층 강당에서 2시간의 역량강화 질관리 프로그램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에서의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시작한 직무교육은 구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업무인 외상에서 임상적 소견과 처치, 자동제세동기, 심전도의 이해, 영유아 응급처치, 응급분만, 환경응급, 뇌졸중, 정맥주사요법, 쇼크의 종류와 치료, 근골격계 손상과 처치,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법을 이론과 실기를 매월 순차적으로 반복교육을 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 적정성 평가"도 최고 등급 인증



구미차병원 심혈관센터가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에서 선정하는 심장혈관 중재시술인증기관 및 인증으로 지정되어, 인증기관 현판식을 지난 3월 12일(월) 가졌다. 구미차병원이 획득한 심장혈관 중재시술인증기관·인증이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기관·임상의를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환자들이 병원과 전문의를 믿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구미차병원 심혈관센터는 시술실적, 장비, 인력 및 흉부외과의 협진 신속성 등 전체적인 조사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심장혈관 중재시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순환기 내과 교수 3명(이현상 교수, 이주환 교수, 류현민 교수)도 모두 중재시술 인증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2012년에는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함께 인증을 받게 되었다.

비목

수년전 친구부부들과 강원도로 단체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여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방 근처의 여행은 우리 일행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 조국분단을 확인하였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나는 안내자의 설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는 돌무더기 같은 곳을 가리키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6.25 사변 당시, 강원도 시골의 어느 마을에는 할머니와 나이가 18세 되는 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연탄은 물론 전기마저 없는 골짜기에서,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호롱불로 밤을 겨우 넘기는, 가난으로 찌든 집안이었다.

이북의 공산 군대는 어김없이 첩첩산중에 있는 이 집을 찾아와서 숙식을 강요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공산군인 한사람은 이 순진한 처녀의 몸을 수차례나 짓밟았다. 그 후 남쪽으로 진격하던 그들은 수개월 후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공산군인은 퇴각 도중에 이 집에 잠시 들렀다. 그는 예쁜 처녀의 배가 볼록한 것을 보았다.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 잠하면 총살감이라서 아리 아리한 마음을 가지고, 흐느끼면서 이북으로 도망치듯 가 버렸다. 어머니가 조력하여,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 그러나 애기는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운명이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16세가 되었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자초지종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물론 헤어진 이후에도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북 측과 연락이 가능하면 간첩으로 총살 감이었다.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은 부부가 똑같았던 모양이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매우 보고 싶었다. 늘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18세 때 어느 날, 단단한 결심을 했다. 아버지를 만나보려 남모르게 휴전선을 넘어가려고 작전을 짰다.

요리조리 국군을 피해가면서 그는 이북으로 넘어갔다. 남모르게 아버지를 만나서, 영~영 울면서 품에 안겼다.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얼마나 그럴듯 아버지였던가! 밤새도록 뜬눈으로 이야기를 한 후, 영원한 이별일지도 모르는 작별을 가져야 했다. 그에게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르고, 오직 그리움만 가슴을 저미는 것이었다. 그에게 사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원락 원장
청하요양병원(경주)

사상이란게 도대체 뭘지....
 이렇게도 철저히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가?
 사상은 생명을 초월하는가?

38선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요리조리 숨을 죽이면서 남모르게 숨어서 내려오다가, 그만 국군에게 들켜버렸다. '탕탕!' 하면서 불을 뿜는 총격에 그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하늘로 날려버렸다. 아버지를 겨우 만났을 뿐, 야속하게도 그리운 어머니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눈동자에만 어머니의 잔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국군 초병은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 보았다. 그의 인적사항을 발견하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헐레벌떡 도착해 보니, 아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라는 인사도 없이 꺼적데기에 덮혀 있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고꾸라져서 혼절하였다.

한참을 지난 후에 어머니는 겨우 일어나, 아들의 시신을 말끔히 닦아서 깨끗한 무명포에 싸다. 근처에 흙을 파고 아들을 묻었다. 거의 돌만 있는 곳이라서, 그 무덤은 돌무덤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자기의 혼을 아들과 함께 합장하여 묻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고통으로 가득한 암갈색 마음은 기약 없이 온 하늘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 근처 양지바른 곳에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다. 그는 진해 근처에서 수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던 학생이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담을 사이에 두고 애인과 만나서, 눈물을 흘치면서 이별을 했다.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남녀가 만날 수가 없었다. 어떤 남녀가 웃으면서 자주 만나면, 사람들은 연애한다고 수군대던 때였으니까.

전방 초소 배치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에, 그는 공산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허

겁지겁 달려갔다. 애인의 아름다움을 뒤에 남겨두고 가족의 따뜻함도 멀리한 채,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베개 삼아 땅에 묻혔다. 그 무덤은 이북에서 넘어오다 사살된 강원도 총각의 무덤 근처에 있다. 동료들은 무덤 앞에 흰 총을 세우고, 그 옆에 나무로 무덤을 표식해 두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고요가 시끄럽다. 이것을 보고서, 시인은 '포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이라는 '비목' 가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곧 노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애절함 속으로 몰아넣는다.

일반 사회 상식으로는 진해에서 자란 청년의 죽음은 애통해하고, 강원도의 총각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됨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어머니는 모두 눈물을 흘린다. 한 사람은 남한의 남편을, 또 한 사람은 북한의 남자를 가지고 있었다. 또 임신 방법도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두 아버지는 똑같은 우리 동포이다. 그런데 국군은 공산군의 아들을, 공산군은 국군 측의 아들을 총살한 것이다. 사상적으로 이들은 다른 부류의 집단에 소속되었지만, 동족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자지간이라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갈라뜨리지 못한다.

두 어머니에게는 공산주의는 뿔이고, 민주주의는 뿔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냥 그냥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도 두 가정의 아들은 반대편 사상의 군대로부터 총살을 당했다. 사상이란게 도대체 뭘지.... 이렇게도 철저히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가? 천년 후에도 이런 사상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까? 인류역사의 흐름에서 이 시대의 산물인가? 사상은 생명을 초월하는가?



지난 3년간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경북의사회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주] 교도소는 국가중요 보안시설이라 사진이나 구체적인 설명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이나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나의 3막, 칠중철궁 (七重鐵宮)

슈베르트의 "송어(Die Forelle : 일명 송어)"는 강물에 뛰어노는 송어 떼의 움직임을 잘 표현한 경쾌한 멜로디의 가곡이다. 이 곡은 주제곡(theme)도 좋지만 그 변주곡(variation)이 더 톡톡 튀는 감칠맛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곡의 변주곡을 더 좋아한다. 전형적인 의사의 길을 약간은 벗어난 변주곡 같은 내 삶의 형태와 비슷하여 그런지도 모르겠다.

2003년 5월 이라크 전쟁이 막 끝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기에 범의료계 이라크 의료봉사단의 단장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의료봉사를 가게 된 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고 변주곡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행여 여력이 생기면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나의 변주곡 1번(variation No.1)이 되었다.

그리고 2004년 6월 "의료원장 없어 발 동동"이라는 기사를 보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 지원하여 울릉도로 들어가 4년 1개월을 살았다. 그것이 '나의 2막'이자 variation No.2가 되었고, 2010년 8월 아프리카 케냐(Kenya)와 말라위(Malawi)에서 2주간의 의료봉사를 다녀왔는데, 그것은 나의 Variation No.3가 되었다.

울릉의료원장에서 정년퇴임 후 과감하게 안식년(安息年)을 선언하였다. 다시 의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개원을 하거나 직장을 갖게 되면 결코 실행하기 힘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똥배짱(?)으로 마음껏 휴식을 즐겼다. 언젠가 내 삶의 행로에서 1~2년 동안 휴식기를 가져보겠다면 작은 희망을 실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자유 시간을 만끽하며 아프리카 의료봉사도 가고 경북의사회 대의원 의장의 역할도 넘겨준 시간으로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었으니 무의미한 time killing만은 아니었다. 이 안식년의 세월은 바람기 같은 나의 variation No.4였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제일 깨끗한 곳, 청송이 내 앞에 나타났다, 무서운 칠중철궁(七重鐵宮)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청송교도소, 청송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여 2010년 경북북부제1, 제2, 제3교도소와 직업훈련소 등 네 개의 교도소로 개명하였다. 그 중 나의 새로운 직장이자 variation No.5의 공연장은 제3교도소이다. 나를 만나려면 두 개의 검문소를 통과하여 다섯 개의 철문을 지나야 하니 구중궁궐(九重宮闕)이 아닌 칠중철궁(七重鐵宮)이다. 여기가 '나의 3막' 무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만진 원장
 본회 직전 대의원회 의장
 수필가

지난 연말 청송교도소로 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을 당시 나는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옛날 울릉도로 갈 때처럼 갑자기 청송 교도소가 유혹의 손짓을 하였다. 개원하여 안락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악명 높은 청송 교도소에서 힘들겠지만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 것인가를 두고 망설임이 없지 않았다. 흉악범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질이 되거나 협박을 받지 않을까, 죄수들을 상대로 내 전공과 다른 각 가지 질병을 진료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잡다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철학과 경험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라크까지도 갔는데, 울릉도에서도 살았는데, 많은 다른 의사들도 거기서 근무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천만금을 주고도 경험하지 못할 정말 특별한 기회인데, 직업적인 봉사의 의미도 있는데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 후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기로.

계약직 4급 서기관으로 경북북부제3교도소 부속의원 원장 겸 의료과장으로 재직하지 불과 5개월, 두려움은 간 곳이 없고 7중의 철궁에서 너무도 즐겁고 평화롭게 진료를 하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기 그지없다. 문신은 보통이고, 무기수는 물론 별(전과)이 20개가 넘는 상습 마약사범,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던 토막 살인범, 악랄한 성폭행범, 보이스 피싱과 간사한 사기범, 조직폭력범, 수십 년의 징역을 살고 있는 감호자들 등등, 이들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료를 하고 훈계를 하고 농담을 한다.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처리는 법대로 하면서 말이다. 지은 죄는 밋지만 높은 담벼락 창살 안에 구금되

어 있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하기도 하다. 그들에 비하여 마음대로 행동하고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은 그 능력과 분수(分數)대로 살아간다. 아주 큰 그릇의 위대한 사람도 있고 작지만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 지금의 나는 크지는 않지만 나에게 꼭 맞는 내 자리를 찾아온 느낌이다. 그리고 내 60년이 넘는 삶의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의 생활은 마치 군의관 시절의 군대 생활과 비슷하다. 아침에 회의를 하고, 별별 요구와 피병의 행태를 보이는 수행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다. 이런 일에 맞지 않는 개성 강한 의사들은 천만금을 준다 해도 견딜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사로서는 물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충분히 하고 정년퇴임까지 한 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별 것도 아닌 일에 때를 쓰고, 별 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그들이 마치 사랑에 목마른 어린 아이 같다. 웃는 얼굴로 설명하고 타이르고 설득하니 의외로 잘 수긍하였다. 이런 역할에는 내 인생 계급장이 한 몫 단단히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운명적인 면이 없지 않다. 내가 여기 청송으로 온 후로 만난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현재 우리 소에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우호적이다. 특히 나와 코드가 딱 맞는 소장님은 소탈한 성격에 직책을 떠나 나를 특별히 대접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함으로서 딱딱할 수밖에 없는 간부회의 석상에도 웃음꽃이 만발한다. 또한 우리는 다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하고, 점심시간마다 활(국궁)을 쏘러 활터로 간다. 그리고 더욱 더 다행스러운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의료과의 모든 직원들도 착

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초보 교도관(?)인 내가 까다롭고 겁나는 수용자들을 다루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내가 여기서 특별한 욕심이나 욕망이 없이 조금이라도 베풀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낮은 자세로 다가갔기에 더욱 그러했을 지도 모르겠다.

나의 임무는 수용자들을 잘 진료하고, 교도소의 위생을 감시하고,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서류에 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자의반타의반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나는 울릉의료원장 재직 시는 물론 안식년 동안에도 경북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건강강의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 교재로 교도관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살예방 강의, 그리고 성희롱 예방과 진료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주고, 강의 중간에 내 인생경험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교훈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준다.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준비하지만 강사료는 물론 특별한 대가도 없이 말이다.

진료와 강의 이외에 나에게도 또 다른 특별한 임무 하나가 있다. 청송에는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을 위하여 넓이가 100여 미터, 길이가 400미터 정도의 그물 없는 대형 잔디밭 골프 연습장이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좋은 골프 연습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골프 연습장에는 레슨 프로가 없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레슨 프로 역할을 한다.

초보는 물론 상급자의 one point lesson과 골프 이론을 가르쳐 준다. 공인 프로는 아니지만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27년의 골프 경력과 베스트 스코어 72타를 무기삼아 돌팔이 레슨 프로가 된 것이다. 내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표준편차를 이용한 스윙의 원리"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골



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실력을 인정해 준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골프 동호회원 모집 광고판에는 "의료과장님 레슨"이라는 큰 글자가 붙어있으니 골프 레슨은 청송에서의 또 다른 보람이자 즐거움이다.

성심껏 수행자들을 진료하고 교도관들을 위하여 강의도 하고 골프 레슨까지 해주다 보니 교도관들은 내가 나타나면 멀리서도 큰 소리로 경례를 붙이며 친근하게 인사를 한다. 원래 교도소 근무 의사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기에 직원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불평 한데, 난 전혀 그렇지 않다. 위아래 모든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수행자들을 위하여 의술을 베풀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니 여기 칠중철궁(七重鐵宮)은 나의 안성맞춤의 "3막" 공연장이다.

교도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0.1%의 사람들을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군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조직이지만 여기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여 수행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습 범죄자들도 많다. 이런 까다롭고 거칠고 간사한 사람들을 대하는 교도관들은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교화

나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 높은 담장 안 칠중철궁(七重鐵宮)으로 출근을 한다.
별난 엑스트라들과 어울리는 나의 3막에 출연하기 위하여!

(correction)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요즘 교도관들은 “간수(看守)라 불리던 옛날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대 일의 경쟁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사람들이다.

지금의 교도소는 옛날 감시탑에 서치라이트(search light)가 돌아가고 먹을 것이 없어 아귀다툼을 하던 그런 곳이 아니다. 민주화는 물론 필요한 곳에는 CCTV가 장착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수형자의 인권이 강조되어 별 일도 아닌데 수형자들이 교도관을 고소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조직사회에 몸담고 있으면 이런 저런 간담회(회식)에 참석해야 한다. 환송회, 환영회, 진급 축하연, 국궁 물기(화살 5개를 연속으로 명중하는 것)덕도 한다. 나는 근무를 시작하고 신고식은 물론 100일이 되는 날에 자발적으로 100일 잔치를 하겠다고 했다. 몇 십 년 근무한 사람들도 근무 100일 잔치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래저래 바쁘게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저녁에는 주말여행을 가듯 대구로 향하고, 일요일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청송콘도(관사 아파트)로 돌아온다. 좀 떨기는 하지만 매주 멋진 드라이브를 한다. 이러다 보니 하루가, 일주일, 한 달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다. 처음 청송으로 올 때는 힘들고 괴로워서 많은 글을 쓸 줄 알았다. 글이란 고통과 고뇌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요즘 아내는 나에게 편지를 준다, “저러다 언제 글 한 편 쓰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습득력이 아주 뛰어나 몇 년간 교도관을 한 사람 같다고 추켜세우지만 그 래 봐야 겨우 5개월,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기분을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도 나의 끝 없는 호기심 덕분에 열심히 묻고 배워서 제법 교도소 생활에 익숙해졌다. 앞으로 좀 더 교도소에 대하여 적응되고 정통해진다면 비교적 미개척분야인 교정의학에 대한 연구와 교도소와 관련된 글을 쓰고 싶다. “피병의 심리와 진단법” 같은 특이한 연구과제에 관심이 가고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수필의 소재가 산재한 이곳 교도소에 얽힌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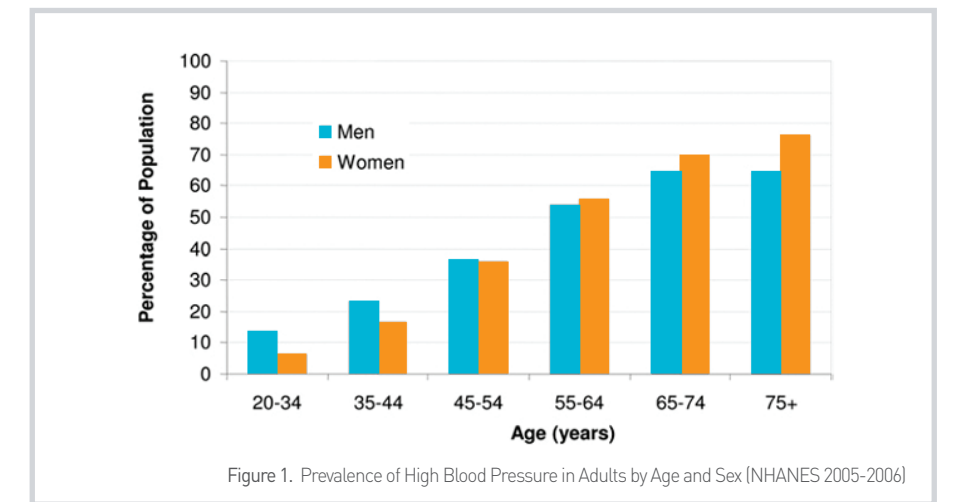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내가 청송교도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하며 기절초풍했다고 한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자 그들이 교도소를 구경하겠다고 청송으로 몰려오고 있다. 주말여행을 못하고 청송 약수 닭백숙 값이 좀 들더라도 고마운 일이다. 교도소는 높은 담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것만 아까워하며 외톨이처럼 살면 어디 있어도 담장 밖의 교도소에 사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 높은 담장 안 칠중철궁(七重鐵宮)으로 출근을 한다. 별난 엑스트라들과 어울리는 나의 3막에 출연하기 위하여!

jmj31@hitel.net

2011년 미국심장학회 노인 고혈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은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혈압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인 고혈압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며⁽¹⁾, 고립성수축기고혈압 환자가 많고, 말초기관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으며,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새로운 심혈관질환발생도 높다. 또한 노인 고혈압 환자들은 많은 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심장학회는 미국신경과학회, 미국신장학회, 미국고혈압학회 및 유럽고혈압학회등과 같이 노인고혈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류로 보고하였다. 그중 약물치료에 대해서만 일 단 논의해 보겠다.



1. 약물치료를 위해 고려할 점

1980년도 중반에 EWPHE (European Working Party on High Blood Pressure in the Elderly)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수축기혈압 160이상, 이완기혈압 90이상인 환자에서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는 심혈관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²⁾. 이후 메타데이터에서도 고혈압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에서 약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나득영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이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도 80세 이상의 초고령환자들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후 HYVET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3845명의 80세 이상의 수축기혈압이 160이상인 환자를 약물치료군과 위약군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하였다. 약물치료군은 indapamide 에 대표적인 ACEI인 perindopril을 투약 하였는데 2년 후 약물치료군과 위약군간의 혈압은 144/78 mmHg와 161/84 mmHg이었으며, 뇌혈관사고는 30%감소, 심부전은 64%감소, 심혈관사고와 치명적인 사건 역시 23%가 감소하였다. 더욱이 모든 이유에 의한 사망에서도 21% 감소를 보임으로서 8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서 약물을 이용한 혈압 감소는 심혈관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첫 번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하겠다⁽³⁾.

2. 약물치료의 시작

고령에서의 항고혈압 약제 투약은 제일 처음 가장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혈압 하강정도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가 잘 적응하는 최대 용량까지 증량 할 수 있다. 고령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치료가 지침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Chobanian 등의 저자가 제시한 것으로부터 변형한 것이다⁽⁴⁾.

고령의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 혈압 조절이 불충분하여 새로운 항고혈압 약제를 추가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 할 점이 있다. 환자가 약물복용 순응도가 높은지, 체액과부하상태는 아닌지,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경우(진통제, 카페인, 항우울제, 비점막충혈완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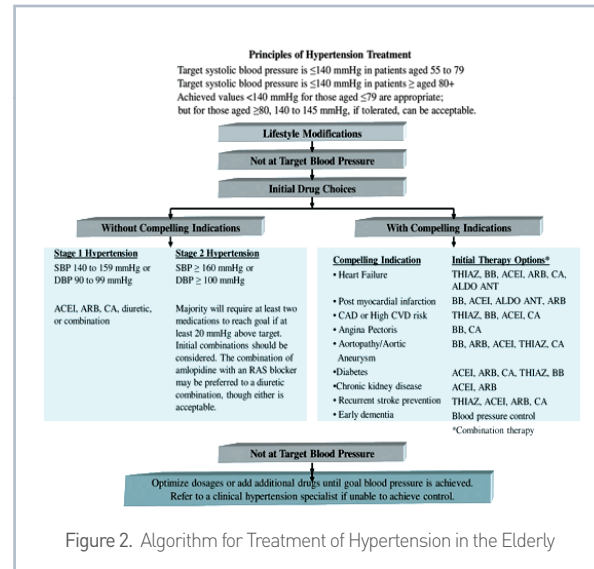


Figure 2. Algorithm for Treatment of Hypertension in the Elderly

(pseudoresistance hypertension)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 본 후에 약물을 추가하여야 한다.

3. 항고혈압 약제

Thiazides Hydrochlorothiazide(HCTZ), chlorthalidone 그리고 bedrofluazide은 고령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항고혈압 약제이다. 한국에서는 HCTZ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서구유럽에서는 chlorthalidone이 투약되고 있다. chlorthalidone은 약물작용시간이 길고 혈압강하효과에 있어 HCTZ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례하여 대사적 부작용은 HCTZ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Thiazide 이노제는 체내용적을 줄이며, 말초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Thiazide 이노제에 잘 적응하고 약제 가격이 저렴하여 좋은 혈압 약으로 이제껏 사용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 심혈관 및 뇌혈관사고를 감소시키며 신장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결과 등이 많은 임상연구에서 보고되어진바 있다. 하지

만 단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령의 사람들은 체내 체액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압력감수성반사가 저하되어 있으며, 이노제 사용에 따른 체액감소 그리고 소금배설이 많아지는 관계로 기립성저혈압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노제 사용은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및 저나트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전해질 장애는 부정맥을 유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전해질 장애는 약물투약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해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 이노제들 Indapamide는 non-thiazide sulfonamide 이노제로서 HYVET⁽³⁾ 및 PROGRESS⁽⁵⁾등의 연구에서 심혈관사고 감소라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 loop 이노제인 Furosemide, bumetanide 그리고 torsemide등은 심부전 또는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연구⁽⁶⁾가 있으며, 그 외 potassium-sparing 이노제로 aldactone과 eplerenone 이 있다. 또한 상피세포소듐전달채널길항제인 amiloride와 triamterene등의 이노제가 단독 또는 병용투약 되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베타 차단제 베타차단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령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사용되었지만 좋은 임상적결과를 보인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노제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이노제에 비해 열등한 임상결과를 보였으며 심혈관사고의 예방에 있어서도 베타차단제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⁷⁾. 따라서 다른 심혈관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차단제를 단독 투여 하는 것

은 권장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부정맥이 동반되어 있거나, 편두통, 노인성진전, 관상동맥질환 및 심부전 환자에서는 권장되어 진다. 최근 3세대 베타차단제인 Nebivolol은 SENIORS (Study of Effects of Nebivolol Intervention on Outcomes and Rehospitalization in Seniors With Heart Failure) 연구⁽⁸⁾에서 심부전이 동반된 7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서 좋은 임상결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새로운 3세대 베타차단제는 초기 개발된 베타차단제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다.

알파 차단제 ALLHAT 임상연구⁽⁹⁾ 이후 Doxazosin과 같은 알파차단제는 고혈압 약제로서 일차선택약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약제들은 전립선비대에 의한 요로증상 개선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약제는 기립성저혈압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고령 환자들에 사용 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칼슘 길항제 칼슘길항제에는 심근, 동결절, 심방전도계, 말초혈관 및 관상동맥 등에 아주 다양하게 작용하는 약제로 그 작용하는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관상동맥과 말초혈관의 평활근 세포에 작용하여 수축을 방해함으로써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맥경직도의 증가, 심방과 심실의 compliance 감소에 의한 이완기능 저하를 호전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항고혈압 약제이다⁽¹⁰⁾. 또한 칼슘길항제는 협심증을 동반하였거나 상심실성빈맥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고령 고혈압 환자들은 칼슘길항제에 잘 적응한다. 그렇지만 드물지 않게 dihydropyridine계 칼슘길항제는 혈관확장 작용에 의해 발목부종, 두통, 기립성저혈압을 나타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립성저혈압은 낙상에 의한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 Verapamil은 심장의 이완 기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에 환자의 심방전도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일세대 칼슘길항제인 Nifedipine, Verapamil과 Diltiazem은 심장 수축기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에서는 사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ACEI는 심박수를 올리거나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작용 없이 말초혈관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체내 Angiotensin 수치는 떨어지게 되어 ACEI는 다른 항고혈압 약제에 비해 효과가 덜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졌다. 하지만 많은 임상연구에서 즉 심근경색이 있었던 고혈압 환자에서 사망률 감소를 보였고 수축기기능 심부전 환자에게 좋은 임상연구 결과(11, 12, 13, 14, 15)를 보였으며, 당뇨에 의한 신부전 발생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보여줬다. HOPE (Heart Outcomes Prevention and Evaluation) 연구(16)에서는 과거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Ramipril을 사용한 결과 심장사망률 26%를 감소시켰고, PROGRESS (Perindopril Protection Against Recurrent Stroke Study) 연구에서는 뇌졸중에 의한 치매를 34%를 감소시켰으며, 과거 뇌졸중이나 일과성뇌허혈이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를 45%정도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6). 따라서 심부전이 있거나 당뇨 또는 만성신부전이 있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ACEI는 우선적으로 선택 될 수 있다. ACEI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만성적인 마른기침, 아주 드물게 혈관성 부종이 있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 환자에 투약 할 때는 고칼륨혈증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성신부전 환자 또는 칼륨보전이뇨제를 투약하는 경우에는 혈중 칼륨수치를 측정하면서 환자를 관찰 하는 게 필요하다.

ARB는 선택적으로 AT-1 수용체를 차단하는 혈압약으로 다른 항고혈압 약제와 동일한 정도의 혈압강하 효과가 있으며 환자들은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도 높다. ARB는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콩팥을 지키는 효과가 보고되었고(17) 단백뇨가 있는 당뇨성 콩팥병증, 그리고 미세단백뇨가 있는 환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다(18), 또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도 ARB는 유용하다(19). LIF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연구에서 좌심실비대를 보이고 있는 고혈압환자 (연령대 55는 55세에서 80세)에서 losartan은 atenolol에 비해 뇌졸중을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20). MOSES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Stroke-Eprosartan Compared With Nitrendipine in Secondary Prevention) 연구에서는 평균연령 68세인 고혈압 환자에서 eprosartan은 nitrendipine과 비교하여 뇌졸중 25%를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21). ONTARGET (Ongoing Telmisartan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Ramipril Global Endpoint/Telmisartan Randomized Assessment Study in ACE Intolerant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Subjec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telmisartan이 ramipril과 동등한 심혈관사고의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22). 이 ONTARGET 연구에서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66세로 대부분의 연구대상들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ARB 고혈압 약제는 첫 번째 선택의 고혈압 약제이기도 하며 심부전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서 ACEI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혈압약이다.

고혈압 약제로 허가 받은 DRI는 아직까지 Aliskiren이 유일하다. 혈압 강하 효과에 있어서는 150mg~300mg의 Aliskiren은 ARB나 ACEI와 거의 동일하다(23). 또한 고령 고혈압 환자에서도 부작용 발생의 증가 없이 거의 동일한 24시간 강압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24). 75세 이상의 만성콩팥질환 환자(GFR 30 mL/min/1.73m²)인 경우에도 용량 조절 없이 투약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25). Aliskiren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인데 이 것 때문에 용량을 조절 할 경우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심부전환자에서도 Aliskiren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Aliskiren의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 고혈압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될 것이다.

Direct Renin Inhibitor (DRI)

노인 고혈압 환자들은 많은 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심장학회는 미국신경과학회, 미국신장학회, 미국고혈압학회 및 유럽고혈압학회등과 같이 노인고혈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류로 보고하였다.

4. 병합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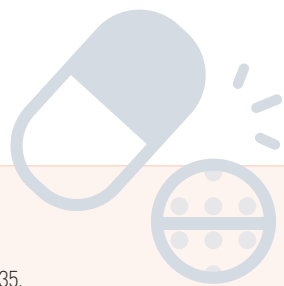
항고혈압 약제의 병합요법은 고혈압 치료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치료 전략이다. 고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치료에 있어 병합요법의 이론적 근거는 Table 1과 같다(25).

Table 1. Rationale for Combination Drug Therapy for Hypertension

- Increased antihypertensive efficacy
 - Additive effects
 - Synergistic effects
- Reduced adverse events
 - low-dose strategy
 - Drug with offsetting actions
- Enhanced convenience and compliance
- Prolonged duration of action
- Potential for additive target organ protection

결론적으로 고령의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는 고령 환자들의 고혈압 병태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한 약제선택, 저용량에서부터 천천히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약제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잘 감시하여야 하며, 고혈압 약물치료에 대한 심혈관사고 감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임상 의사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Lloyd-Jones D, Adams R, Carnethon M, et al. Heart disease and stroke statistics—2009 update: a report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Statistics Committee and Stroke Statistics Subcommittee. *Circulation*. 2009;119:e21-181
- Amery A, De Schaepdryver A, The European Working Party on High Blood Pressure in the Elderly. *Am J Med*. 1991;90:1S-4S.
- Beckett NS, Peters R, Fletcher AE, et al. Treatment of hypertension in patients 80 years of age or older. *N Engl J Med*. 2008;358:1887-98.
- Chobanian AV, Bakris GL, Black HR, et al.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the JNC 7 report. *JAMA*. 2003;289:2560-72.
- PROGRESS Collaborative Group. Randomised trial of a perindopril-based blood-pressure-lowering regimen among 6,105 individuals with previous stroke or transient ischaemic attack. *Lancet*. 2001;358:1033-41.
- Wright JT Jr, Bakris G, Greene T, et al. Effect of blood pressure lowering and antihypertensive drug class on progression of hypertensive kidney disease: results from the AASK trial. *JAMA*. 2002;288:2421-31.
- Messerli FH, Grossman E, Goldbourt U. Are beta-blockers efficacious as first-line therapy for hypertension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JAMA*. 1998;279:1903-7.
- vanVeldhuisen DJ, Cohen-Solal A, Bohm M, et al. Beta-blockade with nebivolol in elderly heart failure patients with impaired and preserv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Data From SENIORS (Study of Effects of Nebivolol Intervention on Outcomes and Rehospitalization in SeniorsWith Heart Failure). *J Am Coll Cardiol*. 2009;53:2150-8.
- ALLHAT Collaborative Research Group. Major cardiovascular events in hypertensive patients randomized to doxazosin vs chlorthalidone: the Antihypertensive and Lipid-Lowering Treatment to Prevent Heart Attack Trial (ALLHAT). *JAMA*. 2000;283:1967-75.
- Mion D Jr, Ortega KC, Gomes MA, et al. Amlodipine 2.5 mg once daily in older hypertensives: a Brazilian multi-centre study. *Blood Press Monit*. 2004;9:83-9.
- SOLVD Investigators. Effect of enalapril on survival in patients with reduc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s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N Engl J Med*. 1991;325:293-302.
- Cohn JN, Johnson G, Ziesche S, et al. A comparison of enalapril with hydralazine-isosorbide dinitrate in the treatment of chronic congestive heart failure. *N Engl J Med*. 1991;325:303-10.
- CONSENSUS Trial Study Group. Effects of enalapril on mortality in severe congestive heart failure: results of the Cooperative North Scandinavian Enalapril Survival Study (CONSENSUS). *N Engl J Med*. 1987;316:1429-35.
- Pfeffer MA, Braunwald E, Moye LA, et al. Effect of captopril on mortality and morbidity in patients with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fter myocardial infarction: results of the survival and ventricular enlargement trial—the SAVE Investigators. *N Engl J Med*. 1992;327:669-77.
- Heart Outcomes Prevention Evaluation Study Investigators. Effects of ramipril on cardiovascular and microvascular outcomes in people with diabetes mellitus: results of the HOPE study and MICROHOPE substudy. *Lancet*. 2000;355:253-9.
- Yusuf S, Sleight P, Pogue J, et al. Effects of an angiotensin converting-enzyme inhibitor, ramipril, on cardiovascular events in high-risk patients: the Heart Outcomes Prevention Evaluation Study Investigators. *N Engl J Med*. 2000;342:145-53.
- Lindholm LH, Ibsen H, Dahlöf B,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diabetes in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study (LIFE): a randomised trial against atenolol. *Lancet*. 2002;359:1004-10.
- Sica DA, Gehr TWB, Frishman WH. The renin-angiotensin axis: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d angiotensin-receptor blockers. In: Frishman WH, Sonnenblick EH, Sica DA, editors. *Cardiovascular Therapeutics*. New York, NY: McGraw-Hill; 2003:131-56.
- Granger CB, McMurray JJ, Yusuf S, et al. Effects of candesartan in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and reduced left-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intolerant to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s: the CHARM-Alternative Trial. *Lancet*. 2003;362:772-6.
- Dahlöf B, Devereux RB, Kjeldsen SE,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study (LIFE): a randomised trial against atenolol. *Lancet*. 2002;359:995-1003.
- Hankey GJ. Secondary prevention of recurrent stroke. *Stroke*. 2005;36:218-21.
- ONTARGET Investigators, Yusuf S, Teo KK, et al. Telmisartan, ramipril, or both in patients at high risk for vascular events. *N Engl J Med*. 2008;358:1547-59.
- Frampton JE, Curran MP. Aliskiren: a review of its use in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Drugs*. 2007;67:1767-92.
- Verdecchia P, Calvo C, Mockel V, et al. Safety and efficacy of the oral direct renin inhibitor aliskiren in elderly patients with hypertension. *Blood Press*. 2007;16:381-91.
- Weber MA, Neutel JM, Frishman WH. Combination drug therapy. In: Frishman WH, Sonnenblick EH, Sica DA, editors. *Cardiovascular Pharmacotherapeutics*. New York, NY: McGraw-Hill; 2003:355-68.

Yein I.D

Interior & Architecture



예[藝] : 재주



예인ID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하기 보다 제대로 일하는 회사로,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겠습니다.

인[印] : 찍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틸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틸프레드니솔론(U,S,P) 4mg

효능·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함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동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중외신약